

李震相의 山水興趣와 그 文學思想의 哲學的 基底

정우락*

【 차례 】

1. 논의의 방향 및 문학관
2. 산수흥취와 그 기행
3. 시문학에 작용한 사상
4.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
5. 논의의 요약과 남은 문제

【 국문초록 】

본고는 이진상의 문학관을 살피는데서 출발했다. 그는 ‘直心’과 ‘明理’를 그 문학관의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부화한 수식을 배격하며 達意를 강조하게 된다. 이것은 성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문학론이기도 했다. 이진상 스스로는 그의 문학이 성글고 거칠다(蹠而宕)고 자평했다. 그는 활발한 문학적 기상이 있었으므로, ‘산수벽’과 ‘문자벽’을 동시에 지닐 수 있었다. 산수벽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산수를 두루 기행하였고, 문자벽이 있었으므로 만나는 사물마다 흥을 일으키고 또한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이진상의 산수 기행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그는 道脈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의무를 자각하기도 하고, 국토산하를 굽어보며 거대한 자아를 체험하기도 하며, 또한 역사유적을 만나면서 회고의 서정을 느끼기도 했다.

사물을 만나면서 창작된 그의 문학에는 어떤 사상이 작용하였을까? 사물의 인식방법과 존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전자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즉물적 인식과 사물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살피는 이념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후자는 보편자와 개별자가 동시에 강조되는 조화적 존재와 개별자보다 보편자가 더욱 강조되는 합일적 존재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다시 사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한 합일적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존재를 성취하지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같은 사상이 그의 문학에 작용하면서 그의 문학은 다양하게 생산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사물로부터 본원을 보는 倒看의 인식론과 경험적 사실에서 궁극적 원리를 추론하는 逆推의 추리법이 그 기저에 있었고, 이것은 '心則理說'을 강조한 그의 주리론과는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었다.

추상적 논리의 세계인 철학과 구체적 경험의 세계인 문학은 상호 경쟁 혹은 협동한다. 이것은 이진상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철학적 논리로 위의 추상적 태극에서 아래의 구체적 사물을 보았다면, 문학적 직관으로 아래의 구체적 사물에서 위의 추상적 태극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용어들을 제시하면서 장황하고 정밀한 철학적 논설로 주리론을 갈파했다. 그러나 감성에 그 출발점을 마련해 둔 문학 작품은 짧으면서도 함축적이다. 이진상 문학의 경우 觀物察理의 이념적 인식과 개개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성을 더욱 강조하는 합일적 존재가 문학의 이면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산수흥취, 문학사상, 直心, 明理, 山水癖, 文字癖, 인식방법, 존재방법, 합일적 존재, 倒看, 逆推, 觀物察理

1. 논의의 방향 및 문학과

본 논의는 寒洲 李震相(1818-1886)이 산수에 특별한 흥취를 느꼈던 점에 착안하여 그의 문학사상을 밝혀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산수는 특별한 것이었다. 자연이라는 용어로 환치 가능한 이 산수는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생산의 현장이기도 하나, 성리학자들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는 도체를 감지하는 특별한 資具이기도 했다. 조선말기 영남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이진상에게 있어서도 산수는 특별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그의 문학은 산수 이해로 점철될 수 있었다. 본 논의는 바로 이같은 점을 중시하면서 그의 문학사상과 그 철학적 기저를 밝혀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이진상은 星山人으로 아버지 源祐와 어머니 의성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

다. 자를 汝雷라 하였으며, 호는 15-6세에는 汕嶠, 이윽고 東嶠라 하였으며, 20세 후에는 定窩, 30세에는 편액을 祖雲憲陶齋라 하였고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寒洲라는 자호는 만년의 것이다.¹⁾ 세상에서는 浦上先生, 洲上先生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특히 그가 자호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진상 의식의 변이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산교’와 ‘동교’는 그 포부의 광대함을, ‘정’의 자기성찰을 통한 학문방향의 정립을, ‘조운현도재’는 학문에 대한 명확한 연원을, ‘한주’는 독자적 세계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상이 30세에 그의 서실을 ‘조운현도’라 편액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 다룰 이진상의 문학사상 역시 그가 표방한 것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운현도’는 그의 아들 이승희가 그렇게 전하듯이 멀리는 晦庵 朱熹(1130-1200)를 근원으로 하고 가까이는 退溪 李滉(1501-1570)을 본받자는 의미이니 前聖과 後賢을 생각하며 그 연원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진상은 주희의 『雲谷雜詠』²⁾과 이황의 『閒居二十詠』³⁾을 차운하기도 했다. 이황의 시를 차운한 다음의 시는 좀 더 구

- 1) 李承熙, 「行錄」, 『寒洲集附錄』 卷2(『寒洲全書』 1, 亞細亞文化社刊, 1980. 827쪽), “十五六歲時, 自號, 曰 汕嶠, 蓋言一汕而天下水可知, 一嶠而天下山可見, 天下事物亦如是耳, 志在博也. 既而, 曰 東嶠, 蓋言生於海東之嶠南, 窄窄無所容爲也, 志所恨也. 二十後則, 曰 定窩, 蓋取知止有定之義, 以自省也. 三十時, 揭齋扁, 曰 祖雲憲陶, 乃遠宗雲谷, 近法陶山之意, 蓋上考前聖, 下沿後賢, 始得師也. 晚而, 曰 寒洲, 蓋欲泯其標榜也.” 『寒洲全書』는 1980년 9월에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고는 이 영인본을 텍스트로 하며, 이하 문집명과 쪽 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 2) 주희의 「운곡잡영」을 차운한 「차운곡잡영」은 「講道」, 「懷人」, 「修書」, 「勞農」, 「宴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次朱子遠遊篇」, 「次朱子山居卽事」, 「次朱子克己韻」, 「次朱子困學韻」, 「次朱子觀書有感二絕」, 「次朱子分水鋪韻」, 「次朱子日用自警詩」, 「次朱子答袁機仲論啓蒙」 등 다양한 차운시가 있다.
- 3) 이진상은 이황의 「和子中間居二十詠」 가운데, 세 수를 차운한다. 「講學」, 「養閒」, 「服藥」이 그것이다. 「講學」과 「服藥」은 이황의 시제를 그대로 취했고, 「養閒」은 이황의 「愛閒」을 변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退溪集筭疑」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次李子林居詠」, 「次李子溪居雜興」, 「次李子月瀾庵韻」, 「次李子東齋感事韻」, 「臨清閣敬次退溪韻」 등의 다양한 시작품도 있다.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학문지향과 문학관이 함축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陸禪迷似鄭聲淫,	육왕학과 불교의 미혹은 정나라 음악의 음탕함과 같아,
朱李齋中正脈尊.	주자와 이선생의 글 속에서 정맥을 찾았네.
珠出泥時明本性,	구슬이 진흙 속에서 나왔을 때 본성을 밝히고,
鏡無塵處見真心.	거울이 티끌 없는 곳에서 참마음을 본다네.
萬理究來該鉅細,	모든 이치를 연구해 가면 크고 작은 것을 갖추게 되고,
一誠存得便崇深.	하나의 성을 보존하면 문득 산과 물처럼 높고 깊게 된다네.
講求履踐元非二,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본래 둘이 아니니,
聖聖相傳只此欵.	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한 것은 다만 이 '공경' 뿐이라네. ⁴⁾

이 작품은 이황의 『和子中間居二十詠』 가운데 「講學」을 차운한 것이다.⁵⁾ 여기서 이진상은 한편으로 육왕학과 불교를 정나라의 음악과 같이 보고 철저히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희와 이황의 학문을 '정맥'으로 삼아 수양론에 입각한 '誠'과 '敬'으로 直心の 길을 가고자 했다. 학문적 지향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양한 경전에 나오는 '직'과 관련된 구절들을 수집하여 『直字心訣』⁶⁾ 상하편을 편집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이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으니 明理의 길을 아울러 제시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진상 학문정신과 문학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학 창작을 통해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할 터인데, '직심'과 '명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진상은 '직심'과 '명리'를 그 문학관의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부화한 수식을 배격하며 達意를 강조하게 된다. '修行이라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일 따름이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修辭라는 것은 뜻을 통달

4) 李震相, 「次李子中間居詠·講學」, 『寒洲全書』 1, 35쪽.

5) 이황의 이 시는 『退溪集』 卷3, 張21-22에 있다.

6) 李震相, 「直字心訣」(『寒洲全書』 3, 611-656쪽)

하는 데서 그칠 뿐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⁷⁾라고 한 언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직심’과 ‘명리’가 문학의 효용적 측면이라면, ‘달의’는 수사적 측면이다. 이진상의 문학관은 이같은 효용과 수사적 태도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문학작품은 내적으로 성정이 발현한 것이며, 외적으로 독서에 영향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다음 자료를 보자.

경하는 『논어』를 읽었는데 『논어』는 도의 정밀(精)이며, 진숙은 『상서』를 읽었는데 『상서』는 도의 근원(原)이며, 나는 『중용』을 읽었는데 『중용』은 도가 상하로 통절(徹)하며 정미함을 관통한다. 각각 읽은 바에 능하여 그 터득함이 있었으니, 극처에 나아가지 못함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간간히 사물을 보고 흥을 실어 시를 지어서 그 뜻을 보였으니, 경하의 시는 고상하면서 따뜻하고(雅而溫), 진숙의 시는 넉넉하면서 두텁고(贍而厚), 나의 시는 성글고 거칠데(踈而宕), 그 성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⁸⁾

이진상은 21세(1838년 무술)에 마을의 뒷산 靈畜山에 있는 感應庵에 가서 독서를 하게 된다. 이때 칠곡 角山의 張福樞(景霞)와 성주 유촌의 鄭三錫(晉叔) 및 종형 李鼎相이 와서 50여일을 함께 독서하게 된다. 독서의 여가를 이용하여 서로 지은 약간의 시를 모아 시축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진상이 그 발문을 썼다. 위의 자료는 이진상이 그 때 쓴 「감응암시축발」의 일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진상은 당시 공력을 들여 읽은 서적과 성정이 묘합하여 시작품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자신의 시는 ‘성글고 거칠다(踈而宕)’고 했다. 이는 물론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활달한 기상을 지닌 그의 젊은

7) 李震相, 「新安世稿序」, 『寒洲全書』 1, 625쪽, “修行者, 爲己而已, 不求知於人, 修辭者, 達意而止, 不期傳於後.”

8) 李震相, 「感應庵詩軸跋」(『寒洲全書』 1, 649쪽), “景霞, 讀魯論, 魯論, 道之精, 晉叔, 讀尚書, 尚書, 道之原, 余, 讀中庸, 中庸, 道之徹上下而貫精微, 各能於所讀者, 有得焉, 則何患乎不造於極也? 問因覽物乘興賦詩, 以見志, 景霞之詩, 雅而溫, 晉叔之詩, 贍而厚, 余之詩, 踈而宕, 其情性, 然也.”

날의 문학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스스로의 문학을 '소이탕'이라 생각하면서 '알아도 정밀하지 못하고, 말하여도 실천하지 못하니, 반드시 그 공부를 백배로 하여서 뒤틀린 것을 맹렬히 바로잡아, 안으로는 存養과 省察의 요체를 다하며, 밖으로는 간절하게 힘쓰고 바르게 경계하는 이익을 자뢰할 것⁹⁾이라며 스스로 다짐했다. 이같은 다짐과 함께 17세 때 중부 凝窩 李源祚(1792-1871)에게서 들은 격려의 말¹⁰⁾은 그에게 이방면으로의 발분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목이 총명한 남자의 몸을 조물주께서 나에게 부여하니 가난하지 않네¹¹⁾'라는 邵雍(1011-1077)의 시를 즐겨 외우는가 하면, 그의 「清夜吟」을 생각하면서 「哦詩」를 짓기도 했다. 다음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詩要言志不要奇,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지 기이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清夜無眠獨臥時.	맑은 밤 잠은 오지 않고 홀로 누워있을 때라네.
長風拂幌助新韻,	긴 바람 휘장으로 불어 새로운 운치 돋우는데,
皎月當窓析舊疑.	밝은 달빛 창에 비치니 옛 의문 밝아지네. ¹²⁾

이진상은 첫째 구에서, 『尙書』 「堯典」에서 언급한 이래 오랫동안 유가 시학의 근간이 되었던 '詩言志'¹³⁾를 제시했다. 「毛詩序」에서 그렇게 밝혀 놓고

- 9) 李震相, 「感應庵詩軸跋」, 『寒洲全書』 1, 649쪽, “知而不精, 言而不踐, 必須百倍其功, 痛可槩括, 內致存養省察之要, 外資切偲規警之益矣.”
- 10) 「年譜」 17歲條(『寒洲全書』 1, 811쪽), “不識義理本領, 負士之名矣 … 汝長於窮究, 盡從事於性理之學. 先生, 自是, 尤發憤, 自任退, 讀性理大典, 晝夜潛究, 至忘寢食.”
- 11) 郭鍾錫, 「行狀」(『寒洲全書』 1, 854쪽), “每愛誦, 邵子詩, 耳目聰明男子身, 洪勻賦余不爲貧, 及日月星辰高照耀, 皇上帝霸大綽舒之句.” 이진상이 즐겨 읽었다는 소옹의 시는 邵雍, 『擊壤集』 卷16, 「觀物吟」과 呂祖謙, 『宋文鑑』 卷25, 「詩」 등에 나오는데, 그 원문은 각각 이렇다. “耳目聰明男子身, 洪勻賦余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閑來往, 三十六宮都是春.” “日月星辰高照耀, 皇上帝霸大綽舒. 幾千百主出規制, 數憶萬年成楷模.”
- 12) 李震相, 「述學自警二十六絕·哦詩」(『寒洲全書』 1, 46쪽),
- 13) 『尙書』 「堯典」,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있듯이 '志'는 주관적인 작가의 뜻으로 마음 속에 있는 것¹⁴⁾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진상의 문학관이 情을 중시하는 緣情說과는 달리 志의 작용을 중시하는 重理說에 정초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 나아가 둘째 구 이하에서는 소옹의 「清夜吟」이 연상되게 했다. 소옹은 이 작품에서, 달이 하늘 가운데 떠 있고 바람이 물결 위를 불어올 때의 맑은 의미를 제시¹⁵⁾하며 천인합일의 정신 경계를 드러냈다. 이진상은 이를 연상하면서 달이 창틀에 비치는 맑은 밤, 긴 바람이 휘장에 불어오는 운치를 통해 오래된 의문을 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진상의 문학관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 마음을 끈게 하고 이것으로 성리학적 이치를 살피고자 한 '직심'과 '명리'의 시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진상 사상의 최장치가 성리학에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이 방면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형성과 이상하가 그들의 학위 논문에 잘 정리해 놓고 있듯이 이진상의 성리학은 '主理哲學'이라는 관점에서 논구되다가, 다시 리기론적 기초와 심성론, 리기론에서의 리의 특성, 심에 대한 구조로 '理發—路說'적인 측면에서의 사단칠정론 등으로 연구¹⁶⁾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명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된 일련의 기획발표를 통해 근대 유교의 학맥과 민족운동이 한주학과에게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기도 했다.¹⁷⁾

14) 『毛詩』, 「毛詩序」,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15) 『性理大全』 卷70, 「詩·絕句」,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

16) 李炯性, 「寒洲 李震相의 性理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6쪽 및 李相夏,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立論 根據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4-5쪽 참조.

17) 기획발표는 1999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근대 영남유학의 유산(한주학과)'이라는 주제의 발표대회와 2001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근대의 유교학맥과 민족운동3-한주학파의 민족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대회가 대표적이다. 전자의 발표논문은 『한국학논집』 제26집(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99)에 실려 있다. 박홍식, 「심산 김창숙의 유교정신과 구국운동」: 김종석, 「성과 이인제의 서구수용

본고에서는 철학계에서 거둔 일련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이진상의 산수흥취와 문학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탐구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진상이 (1) 활달한 성격으로 산수를 유람하였던 점, (2) 그의 문학작품, 특히 시문학에 작용한 사상, (3)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 등을 두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을 유람하면서도 정밀하게 사물에 접근하여 그것에 내재한 성리학적 이념을 일정한 철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이진상 문학사상의 일국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또한 고전 학문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학문의 유기성을 고려하면서, 문학과 철학의 상관관계도 이진상의 경우를 통해 함께 밝혀질 것으로 본다.

2. 산수흥취와 그 기행

이진상이 '조운현도'로 편액하면서 특별히 존경했던 이황, 그는 일찍이 수양과 作詩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즉 '마음이 주재할 수 있으면 사물은 사물대로 존재하여, 그 사물이 마음을 해롭히지 않지만, 마음이 주재할 수 없으면 程朱의 문에서처럼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산수를 노닐고 즐기는 것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¹⁸⁾는 것이 그것이다. 마음의 주재자가 '敬'이

론과 신학에의 관심」: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이동희, 「한주학파의 퇴계 성리학 계승」이 그것이다. 후자는 『대동문화연구』 제38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에 실려 있다. 김희곤, 「제2차 유림단의거 연구-심산 김창숙의 활동을 중심으로」: 임경석, 「파리장서 서명자 연구」: 권대용,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주학파에 대한 연구는 이종우의 「한주학파와 간재학파의 의리실천에 관한 논쟁」(『한국철학논집』 15, 한국철학사연구회, 2004)과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統性情說 논쟁과 그 의의』(『동양철학연구』 42, 동양철학연구회, 2005) 등이 있다.

18) 李滉, 「答鄭子中」(『增補退溪全書』 2,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刊, 1978. 28쪽), “心

니 이것으로 마음을 제대로 보존한다면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거나, 혹은 산수를 찾아 노닐거나 하여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체가 굳건하여 어떤 외물이라도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릇되게 하는 것이니, 흥이 나고 정이 알맞으면 시를 짓지 않기가 어렵다’¹⁹⁾고 한 고백도 같은 입장에서 제출한 언표이다.

수양론에 입각한 강한 주체성이 성립될 때 외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작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물을 만나 흥이 일어나면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경계에서의 작시활동, 이진상 역시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산수를 유람했고, 유람을 통해 만나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를 남겼다. 그 스스로도 고치기 어려운 ‘文字癖’이 있다고 고백²⁰⁾하기도 했지만 그는 347제 530수의 적지 않은 한시 작품을 남긴다. 그의 작시활동은 주로 자연 속에서 고인을 생각하며 사색을 즐기거나,²¹⁾ 학문과 수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²²⁾ 자연 속에서 경물과 부딪치며 일어나는 많은 생각을 일정한 시각에 입각하여 나타내거

能主宰，則物各付物，物不能爲心，心不能主宰，則雖作詩寫字游山玩水，程朱之門，皆以爲戒者，爲此故也，亦不可不知也。”

- 19) 李滉, 「和子中閒居二十詠·吟詩」(『退溪集』卷3, 『韓國文集叢刊』110쪽),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
- 20) 李震相, 「傷時述懷五絕」(『寒洲全書』1, 75쪽), “園無花卉壁無圖, 自信平生世味疎. 惟有難醫文字癖, 百編論著竟何如.”
- 21) 「嘔古二十二絕」(『寒洲全書』1, 48-50쪽)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이진상은 伊尹, 傅說, 伯夷, 姜太公, 周公, 衛武公, 柳下惠, 蘧伯玉, 魯仲連, 張子房, 董仲舒, 嚴子陵, 諸葛孔明, 陶淵明, 王通, 韓退之, 杜甫, 張巡, 范希文, 司馬君實, 岳飛, 文天祥 등 22인에 대하여 노래했다.
- 22) 「述學自警二十六絕」(『寒洲全書』1, 44-46쪽)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이진상은 善小必爲, 惡小必祛, 克己, 反己, 愼思, 愼言, 主靜, 謹獨, 處事, 接人, 辭受, 看書, 著書, 輯禮, 哦詩, 調病, 篤志, 安命, 明理, 御氣, 指敬, 存誠, 居仁, 由義, 闢異端, 明聖道 등 학문과 수양의 요체 26개 분야에 대하여 노래했다.

나²³⁾ 하면서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의 것이다. 그의 산수에 대한 흥취와 문학사상은 이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상의 산수흥취는 생래적이었다. 그는 일찍이 우리 집안 3세가 남쪽으로 유람했다²⁴⁾고 한 적이 있다. 3세는 涵淸軒 李亨鎭, 寒臯 源祐와 凝窩 源祚, 그리고 이진상 자신을 말한다. 이들은 남쪽으로 유람했을 뿐만 아니다. 동쪽으로는 몰운대, 서쪽으로는 묘향산, 북쪽으로는 금강산 등을 두루 유람했다. 이 때문에 이진상은 금강산 기행을 떠나면서 '우리 집은 대대로 산수를 지극히 좋아하는 山水癖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산수를 지극히 좋아하는 병이 있다. 왕고 함헌공께서는 일찍이 말 한 마리에 두 사람의 하인을 데리고 관동 명승지를 두루 찾아 다녔고, 선고 한고부군께서는 남쪽으로 금산을 올랐고 서쪽으로는 묘향산을 찾았으며 동쪽으로는 몰운대까지 이르렀으나, 만년에 풍비가 있어 원화동천을 보지 못하자 이것을 유한으로 여겼다. 중부 옹와공께서는 기유년 봄에 금강산으로 가시다가 제천의 봉월성에 이르러 조서를 받아, 3년 뒤 신해년에 다시 유람하였는데 속유선지가 있다.²⁵⁾

위의 자료는 그의 산수기행과 그 흥취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었음을 말한다. 이것은 이진상이 자신의 눈에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자연만을 노

23) 「寄題朴輝道山亭十絶」(『寒洲全書』 1, 39-40쪽), 「晚歸亭次軸中韻二十二首」(『寒洲全書』 1, 43-44쪽), 「次雲圃亭十一詠」(『寒洲全書』 1, 54쪽), 「歷賦八景各拈本名一字爲韻」(『寒洲全書』 1, 58-59쪽), 「七山齋十二景」(『寒洲全書』 1, 73-74쪽), 「山居寫景二十一首」(『寒洲全書』 1, 82-83쪽) 등 허다한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24) 李震相, 「城峴留贈河生」(『寒洲全書』 1, 58쪽), 「吾家三世踵南遊」

25) 李震相, 「發金剛山」(『寒洲全書』 1, 63쪽), 「我家, 世有山水癖, 王考涵淸公, 嘗以一馬二僮, 遍搜關東名勝, 先考寒臯府君, 南陟錦山, 西探妙香, 東極沒雲, 而晚患風痺, 每以不及見元化洞天, 爲遺恨. 仲父凝窩公, 以己酉春, 作金剛行, 纔到堤川奉月城, 除旨, 越三年辛亥, 再往, 有續遊仙誌.」

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산수를 기행하면서 다양한 경물들을 만나고, 이것을 일정한 시각에 의거해서 작품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산수기행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젊은 시절부터 한개를 중심으로 한 성주지역, 합천을 경유한 지리산 지역, 김해를 경유한 부산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거창이나 금오산, 청도와 경주 등으로 그 반경을 넓혀나가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인근의 성주 지역, 지리산 지역, 금강산 지역, 부산 지역 등 네 지역의 산수기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주 지역은 이진상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영축산 감응암에서 독서를 하면서 시를 지어 시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석암을 유람하기도 하고, 중부의 정자 만귀정에 가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정구와 김우옹의 독서처인 수도산의 무흘서당과 고반정사를 심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작품을 남기는데, 「山居寫景二十一首」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靈畜山, 伽倻山, 修道山, 三峰 등의 산을 비롯해서, 王佐洞, 旅來洞, 涵清谷, 大浦村 등의 골짜기와 마을, 竹南精舍, 樂來軒, 悅習齋 등의 재사, 성루에서 저물녘에 피리 소리를 들으며 지은 「城樓暮角」이나 북쪽 창문으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맞으며 지은 「北窓清風」, 시냇가를 산보하며 지은 「溪邊散步」 등 다양한 시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도산」은 이러하다.

武屹權停鎖暮烟,	무흘의 權歌 멈추자 저무는 안개만 자욱하고,
考槃琴冷瀉幽泉.	고반의 거문고는 싸늘히 식어 그윽한 시내만 흐르네.
高風正脈今無繼,	고풍과 정맥이 지금은 이어지지 않으니,
沂水零壇夢幾年.	기수 목욕과 무우대 쏘이는 바람, 꿈 꾀지 몇 해던가?26)

26) 李震相, 「修道山」(『寒洲全書』 1, 82쪽)

수도산은 정구와 김우옹이 서식하던 곳이다. 정구는 무홀정사를 지어놓고 무홀구곡을 경영하면서 주희의 시운에 따라 「仰和朱夫子武夷權歌詩韻十首」를 지었다. 이 때문에 첫째 구에서 무홀도가 떠올리면서, 정구가 가고 난 자리의 쓸쓸한 정취를 묘사하였다. 둘째 구에서는 김우옹의 고반정사를 떠올리면서 역시 그가 없는 자리의 허전함을 드러냈다. 셋째 구의 고평과 정맥은 조식과 이황을 의미한다. 정구가 김우옹의 만사에서 '퇴도의 바른 맥 종신토록 기리었고(退陶正脈終天慕), 산해의 높은 기풍 특별히 흠모했네(山海高風特地欽)'²⁷⁾라 한 구절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식과 이황의 제자인 정구와 김우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들의 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상은 자신이 이들의 유적지를 찾아 바람을 쏘이면서 정구와 김우옹을 이어 영남의 학문을 잇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지역으로의 기행은 성주를 출발하여 합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60세에 이 기행은 구체화되었는데, 金希鎭이 배행을 하였다. 합천의 涵碧樓, 碧寒亭, 黃溪瀑布를 지나 단성의 院北亭과 赤壁江을 두루 유람하고, 李濟臣의 陶丘臺, 조식의 山天齋를 경유하여 大源庵, 雲影樓, 龍湫, 開雲巖을 거쳐 드디어 天王峯을 오른다. 이 여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해까지 이어져서 錦山, 菩提庵, 龍窟, 雙虹門, 甘露泉, 坐仙臺, 烽臺, 九鼎巖 등을 두루 유람한다. 돌아오는 길에 轟石樓와 合江亭을 들렀고, 창녕을 거쳐 성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 여행에서는 자연경물 뿐만 아니라 許愈, 郭鍾錫, 朴致馥, 金麟燮, 鄭載圭, 金鎭祐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강학을 하기도 하고, 함께 유람하며 회포를 풀기도 했다. 당시 천왕봉에 올라 지은 시는 이러하다.

仙靈憐我老,	신선이 내가 늙은 것을 불쌍히 여겨,
一宿許巖顛.	한 번 바위 꼭대기에 자는 것을 허락해 주었네.

27) 鄭述, 「挽金東岡二首」, 『寒岡集』 卷1, 張9.

伸股縮平地,	다리를 펴고 평지를 줄여서,
側身睡半天.	몸을 옆으로 하여 한 나절 잠을 잤네.
呼吸通霞外,	호흡은 안개 밖으로 통하고,
精神傲日邊.	정신은 태양가에서 밝도다.
三更輾一覺,	한 밤에 뒤척거리다 한 번 깨어나 보니,
雲海正蒼然.	구름 바다가 참으로 창연하구나. 28)

이진상이 도구대와 대원암, 산천재 등을 거쳐서 천왕봉에 오른 것을 보면, 지금의 증산리와 법계사 쪽으로 등산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작품은 천왕봉에 올라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느낀 것을 적은 것이다. 이 시의 경련에서 다리를 겨우 펴고 한 나절을 자면서도, 호흡은 안개 밖으로 통하고, 정신은 태양 가에서 밝다고 하면서 드넓은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자아를 드러내 그의 호연한 기상을 알 수 있게 했다. 새벽에 일어나 일출의 장관을 보고, 대원사로 다시 돌아와 꼭종석이 천왕봉 장관을 본 것에 대하여 축하하자, 이진상은 '眼界는 궁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몸은 극처에서 더욱 관대해진 다' 29)면서 자연을 통한 새로운 각도의 인간 이해를 보이기도 했다.

금강산 지역으로의 기행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 기행은 23세(1840년, 庚子) 때 이루어졌는데, 중부 이원조의 부임지가 강릉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강산에 오르지 못하고 관동의 명승과 평양의 풍광을 두루 유람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당시의 심정은 「江陵界中」, 「踰大關嶺」, 「鏡浦臺」, 「望海」, 「雲仙洞」, 「舍人巖」, 「松京懷古」, 「猪灘」, 「劔水」, 「黃州」, 「月波樓」, 「練光亭」, 「平壤外城」, 「箕子宮」 등에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2차 기행은 62세(1879년, 己卯)에 이루어졌다. 하회, 청량산, 영양을 거쳐 영동 7군을 두루 지나면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당시 예안의 吾山堂에

28) 李震相, 「登天王峯」(『寒洲全書』 1, 57쪽)

29) 李震相, 「還大源庵鳴遠用朱子南嶽韻賀天王峯壯觀因次之」(『寒洲全書』 1, 57쪽), "眼以窮時大, 身於極處寬."

서 姊夫 李震微의 시를 차운하여 그 설레는 마음을 노래하기도 했다. ‘산 빛은 세 신선이 사는 곳과 비슷하고, 숲 속의 바람 오월인데도 서늘하네. 구름이 깃들어 푸르름 익지 않았는데, 필마로 금강산으로 들어간다네.’³⁰⁾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금강산, 이진상은 이 여행에서 수많은 시를 남기는데 그 가운데 「白雲臺」는 이렇다.

一線逕通萬仞山，	하나의 좁은 길을 지나 나타나는 만 길의 산，
遙看奇景在高攀。	아득히 보이는 기이한 경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네.
乍喜雲歸青鶴洞，	구름이 청학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잠깐 기뻐하다가，
翻愁雨濕黑龍灣。	비가 흑룡만을 적셔서 다시 슬퍼한다네.
蜂腰欲斷將連際，	벌의 허리처럼 끊어질듯 다시 이어지는 즈음，
鳳尾方騰未翫間。	봉의 꼬리처럼 날아오르려다 멈추어 선 경계，
今行欲試毗盧脚，	이번 기행을 비로봉 기슭에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不是乘危做等閒。	위험한 곳이라 예사롭게 할 수는 없다네. ³¹⁾

이진상은 위의 작품에서 금강산 등반을 실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두련에서는 등산과정에서 만나는 험난한 길과 그 길이 끝난 자리에서 나타나는 절경을, 합련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깎에 따라 느끼는 유산객의 정서를, 경련에서는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고, 하늘로 오르려다 멈추어 서있는 산의 다양한 모습을, 미련에서는 비로봉 기슭에서 높은 곳을 오르기 전에 다잡는 마음을 두루 나타냈다. 이진상은 급기야 다시 비로봉을 올라 ‘티끌의 온 세상은 눈에 다 들어오지 않고, 제일 신령스런 곳은 가장 꼭대기’³²⁾라며 당시의 감회를 벽차게 노래했다. 금강산 기행에서 그가 본 것은 越松亭이나 竹西樓 등의 누

30) 李震相, 「吾山堂次李叙五韻」(『寒洲全書』 1, 72쪽), “山色三清近, 林颺五月涼. 雲機絲未熟, 匹馬入金剛.” 삼청은 도교의 삼신으로, 玉清元始天尊, 上清靈寶道君, 太清太上老君이다. 이진상은 청량산이 이들이 사는 산처럼 신령스럽고 맑다고 했다.

31) 李震相, 「白雲臺」(『寒洲全書』 1, 67쪽)

32) 李震相, 「毗盧峯三首·其一」(『寒洲全書』 1, 67쪽), “大千塵界不盈眸, 第一神仙最上頭.”

정, 神溪寺와 長安寺 등의 사찰, 穴望峯, 香爐峯 등의 봉우리를 비롯한 隱仙臺와 九龍瀑 등의 수많은 자연경물이었다. 이들 사물을 만나면서 이진상은 흥이 일어나는대로 시를 지었으니, 그의 문자벽이 충분히 발휘된 셈이다. 이 여행은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당시 주유한 것은 2,840리나 되는 대장정이었다.

부산 지역으로의 기행은 63세(1880년, 庚申) 되던 해 가을에 이루어졌다. 당시 동행했던 사람은 成圭鎬와 李根玉 등이었으며, 의령의 紫巖亭를 거쳐 김해로 들어가 가락국의 고도를 두루 살피고 燕子樓에도 올랐다. 그리고 배를 타고 부산으로 건너가 일본관, 沒雲臺, 絶影島 등을 유람하였으며, 濫井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은 밀양로를 택했는데, 밀양을 거치면서 鰲漢 孫起陽의 정자인 七灘亭, 竹巖 孫鍵의 재사인 七山齋,³³⁾ 鄒川 孫英濟의 별서인 鼇淵亭 등을 거치면서 다시 성주로 돌아온다. 이진상은 가는 곳마다 작품을 남기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김해의 연자루에 올라 읊은 시를 감상하기로 한다.

金官城古鎮南州，	금관성은 오래도록 남쪽 고을을 누르고 있는데,
形勝全輸此一樓。	좋은 경치를 모두 이 한 누각으로 옮겨 놓았구나.
雄嶽儲靈龜曝背，	영험 많은 웅장한 산엔 거북이가 등을 말리고,
大江朝氣鴨交頭。	아침 기운 서린 큰 강에는 오리가 머리를 교차하고 있네.
曲沼有聲魚躍夜，	물소리 나는 구비마다의 못엔 물고기가 밤에도 뛰고,
畫樑無語鷺歸秋。	말없는 채색 들보엔 제비가 가을날 돌아가는구나.
宮墟草沒鍾沈海，	궁궐터는 풀에 잠기고 종소리도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話到興亡反惹愁。	말이 흥망에 이르자 도리어 근심이 생긴다네. ³⁴⁾

33) 이진상은 칠산재 주위의 풍경을 특히 아름다워 하면서 七山齋의 경관을 12수로 나누어 작품화했다. 「十里鳴灘」, 「三峽層巒」, 「桂嶺明月」, 「竹裏清風」, 「鶯岵歸雲」, 「龜湖落照」, 「楮島牧笛」, 「梨淵漁火」, 「北川行舟」, 「東山古臺」, 「羅岵疊石」, 「錦溪長烟」 등이 그것이다.

34) 李震相, 「燕子樓次板上韻」(『寒洲全書』 1, 72쪽)

연자루는 진주의 축석루, 안동의 영호루, 밀양의 영남루, 울산의 태화루, 영천의 명원루, 양산의 쌍벽루 등과 함께 영남의 7대루로 불린다. 이진상은 이곳에 올라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좋은 경치를 감상한다. 두런에서 좋은 경치를 이 누각에 모두 옮겨 놓았다고 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함련과 경련은 누각 주변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측면을 달리했다. 함련이 산과 강의 신령스러움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경련은 소리 내는 시냇물과 소리 없는 들보를 청각적으로 묘사했다. 연자루의 누각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미련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다. 가락국의 흥망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다. 풀에 묻힌 궁궐터와 바다에 가라앉은 종소리라는 표현으로 그 적막감을 극대화시켰다. 이진상은 이처럼 여행 과정에서 역사의 현장을 만나면 옛날을 생각하며 때로 우수에 젖기도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진상의 산수흥취와 그 기행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는 스스로 '산수벽'과 '문자벽'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산수벽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산하를 두루 여행할 수 있었고, 문자벽이 있었으므로 만나는 경물마다 이로 인해 촉발되는 감흥을 시작품으로 창작할 수 있었다. 이진상의 기행 경로는 다양하지만 고향 성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합천을 경유한 지리산 지역, 안동을 경유한 금강산 지역, 김해를 경유한 부산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 성주지역에서는 영남학파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고, 지리산과 금강산 지역에서는 위대한 국토산하를 굽어보면서 호연한 기상을 키웠다. 그리고 김해와 부산 지역에서는 역사 유적과 그 회고가 간결한 필치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이진상이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사물들, 이와 관련된 문학작품들 이면에는 어떤 사상이 작용한 것일까?

3. 시문학에 작용한 사상

이진상은 스스로의 山水癖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곳을 여행한다.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물들을 만나 흥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시를 남긴다. 이들 작품이 그의 일정한 문학사상에 기반한 것임은 물론이다. 문학사상은 문학에 관한 사상과 문학에 나타난 사상, 그리고 문학에 작용하는 사상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본 장에서는 세 번째의 경우를 중심으로 따져보기로 한다. 이진상의 문학을 그의 철학과 연관시키면서 가장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 작용하는 사상은 문학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내재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히 성리학자들의 문학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방법은 대단히 유효하다. 이것 역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하기로 한다. 하나는 사물의 인식방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물의 존재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피면서 이진상 문학작품의 창작과정을 주목하기로 하자.

먼저 사물의 인식방법에 대해서다. 사물 인식방법은 여럿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즉물적 인식, 이념적 인식, 역사적 인식이 그것이다. 이념적 인식은 사물을 '이치'가 드러나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대상 사물을 주체화하여 인식한다. 이념은 모든 경험에 통제를 부여하는, 즉 순수 이성에서 얻어진 최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물과 자아가 '理'로 통합될 수 있고 수양에 의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물적 인식은 시적 대상인 사물을 객관적 존재물로 보고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적 재현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역사적 인식은 인식객체인 사물과 인식주체인 자아 사이에 탄력이 부여됨으로써 객관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상을 현실에 포함시켜 이해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해석이 주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³⁵⁾

이진상의 경우 사물을 통해 세상을 살피는, 즉 觀物察世의 역사적 인식에 입각한 작품이 없지 않으나, 그의 문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觀物察形의 즉물적 인식과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는 觀物察理의 이념적 인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사물을 살피는 것은 시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因物'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에 입각하여 이진상은 '起興'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물의 형상을 민첩하게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성리학적 이치를 그 사물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이것은 산수의 아름다움과 그 흥취에 대한 문학적 제시인 동시에, 이것을 넘어서는 도학의 성취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造道的 입장을 취한다고 하겠다. 우선 관물찰형의 즉물적 인식에 입각한 다음의 작품을 통해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보기로 하자.

萬壘東來海,	만첩의 동쪽 바다,
無風亦無濤.	바람 불지 않으니 파도 또한 없구나.
近臨遷似窄,	가까이 가면 오히려 좁은 듯하고,
遠望卻疑高.	멀리서 바라보면 도리어 높은 듯하네.
孤島浮魚脊,	외로운 섬은 떠 있는 물고기의 등뼈요,
歸舟迅鴈毛.	돌아가는 배는 빨리 나는 기러기의 깃이라네.
問何如許大,	물나니 그 크기가 얼마인고?
江漢日滔滔.	양자강과 한수가 날마다 도도한 듯. ³⁶⁾

위의 작품은 이진상이 바다를 보면서 지은 「觀海」의 전문이다. '바다'라는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비유의 옷을 입혀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35) 鄭羽洛,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退溪學과 韓國文化』 34, 慶北大 退溪研究所, 2004. 144쪽.

36) 李震相, 「望海」(『寒洲全書』 1, 32쪽)

정서가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시적 자아의 감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련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가 잔잔한 동해를, 합련에서는 바다의 근경과 원경을, 경련에서는 바다에 떠있는 섬과 지나가는 돛단배를, 미련에서는 날마다 도도하게 출렁이는 바다의 크기를 묘사했다. 이 가운데 합련과 경련은 묘사가 절묘하다. 합련에서 가까이 가면 좁은 듯하고 멀리서 보면 더욱 높다고 하여 바다의 거대함을, 경련에서 물 위로 솟아오른 물고기의 등뼈 및 날아가는 기러기의 깃을 통해 외로운 섬과 지나가는 돛단배를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묘사는 情景論에서 흔히 언급되는 ‘只須述景’이나 ‘情意自出’의 방식이다. 정의가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진상의 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 관물찰리의 이념적 인식에 투철한 시를 동시에 창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가 그것이다.

翠壁撐天立,	푸른 벽이 하늘을 버티고 서 있으니,
巖巖道氣隆.	바위마다 도의 기운이 융성하구나.
斯文今百六,	사문은 지금 액운의 시절을 만났으니, ³⁷⁾
那起紫陽翁.	어떻게 하면 주부자를 일으킬 수 있을까? ³⁸⁾

이 작품은 「寄題朴輝道山亭十絶」 가운데 「光道壁」이다. 하늘을 높이 떠받치고 있는 바위의 이름을 ‘광도’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위라는 사물에 ‘도’라는 이념을 이입시켰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째 구에서 ‘바위마다 융성한 도의 기운’을 말한 것이다. 자연은 이처럼 ‘道氣’로 충만한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셋째 구에서 유학이 액운을 만났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이진상은 마침내 주희가 다시 일어나 타락한 세상을 구제해주

37) ‘백육’은 액운이 든 해를 말한다. 術家에서 4617년을 1元이라 하고, 매원의 처음 106년 동안에 아홉 번 가뭄이 드는 해가 있다고 한다.

38) 李震相, 「光道壁」(『寒洲全書』 1, 40쪽)

길 간절히 희망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이진상은 사물인 바위를 통해 '도'라는 이념을 살피고, 이같은 생각을 더욱 확대하여 유학의 위기 극복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사정의 이러함은 고기가 뛰는 곳에서 生意를 발견하거나, 39) 온 산에 내린 눈을 통해 清真을 발견40)하는 등 다량의 작품에 나타난다.

다음은 사물의 존재방법에 대해서다. 개별자인 자아와 사물의 관계는 보편자인 태극 혹은 理에 대한 힘의 우열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합일적 존재, 대립적 존재, 조화적 존재가 그것이다. 합일적 존재는 보편자가 개별자의 우위에 있는 경우로, 이 때 개별자인 자아와 사물은 이들에 내재해 있는 보편자의 인력에 의해 합일하게 된다. 대립적 존재는 개별자가 보편자의 우위에 있는 경우로, 이 때 개별자인 자아와 사물은 상호간의 기질적 요소로 인해 斥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대립한다. 그리고 조화적 존재는 개별자와 보편자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로, 이 때 개별자인 자아와 사물 사이에는 인력과 척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이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사립파의 후예들이 이룩한 문학의 경우 이 이론은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개별적 사물 속에 내재한 보편자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중요한 학문적 방법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41)

성리학자 이진상 문학을 인식주체인 자아와 인식객체인 사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둘의 갈등에 의해 초래되는 대립적 존재방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진상이 주로 사용했던 한시형식은 절구와 율시인데, 여기에 따른 형식적 한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성리학은 세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9) 李震相, 「忘魚磯」(『寒洲全書』 1, 39쪽), “躍處觀生意, 徒忘與道違.”

40) 李震相, 「追和月川齋堂軸中韻」(『寒洲全書』 1, 51쪽), “好友相逢多好話, 一山寒雪助清真.”

41) 鄭羽洛, 「德溪 吳健의 文學思想과 그 形象原理」, 『東方漢文學』 27, 東方漢文學會, 2004. 97쪽.

따라서 이진상 한시는 대체로 자아와 사물이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조화적 존재 및 자아와 사물이 지닌 개별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이들 사이의 보편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합일적 존재가 주된 창작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조화적 존재방법에 입각한 다음의 시편을 보자.

溪淺久停權,	시내가 얕아 오래도록 노가 머물러 있고,
臺高暫弄簾.	돈대는 높아 잠시 통소를 붙어보네.
胎仙巖頂立,	학이 바위 꼭대기에 서 있으니,
欲友便相招.	벗 하고자 하여 문득 서로 불러보네. ⁴²⁾

이 작품의 제목은 「友鶴臺」이다. 돈대의 이름이 '友鶴'이니 그 명칭부터 존재 사이의 조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지극히 용이한 것이라 하겠다. 시적 자아와 사물인 '학'이 서로 '벗'하기 때문이다. '벗'한다는 것은 자아와 사물이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간의 긴밀한 정서가 작용하여 인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구에 보이는 벗 하고자 하면서 서로 부른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이진상은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얕은 시내와 높은 돈대를 제시하면서 '우학대' 주위의 경관을 살폈다. 그리고 시적 자아는 높은 돈대 위에서 통소를 붙고, 학은 바위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 둘이 벗하고자 서로 부른다고 했다. 인식주체인 자아와 인식객체인 사물의 절묘한 조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같은 형상화 방식은 그의 시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幽居」에서처럼 버드나무나 꽃을 찾으며 그윽하게 사는 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⁴³⁾ 雲圃亭에서 차운한 11수가

42) 李震相, 「友鶴臺」(『寒洲全書』 1, 40쪽)

43) 李震相, 「幽居」(『寒洲全書』 1, 34쪽), “清晨携酒上松壇, 大酌微醺駐好顏. 閒柳尋花幽興足, 不關斜日倒前山.”

운데의 「總叙」에서처럼, 바람을 따라가지 않는 산 속의 구름인 사물과 世路를 따라가지 않는 서정적 자아로 나타나기도 한다.⁴⁴⁾ 한편, 조화적 존재에서 보편성이 더욱 강조되면 개별성은 사라지고, 두 존재는 그 보편성에 의해 합일된다. 합일적 존재를 성취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보자.

大地孰非島,	대지 어느 것인들 섬이 아니겠는가?
際天都是水.	하늘 닿은 곳이 모두 물이라네.
欲知無極眞,	무극의 참됨을 알고자 한다면,
會向心中起.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리. ⁴⁵⁾

止水觀心體,	고요한 물에서 마음의 본체를 보나니,
聖凡寧有異.	성인과 범인이 어찌 다르겠는가?
祇緣氣滓濁,	다만 기에 인연하여 흐리게 되는 것이니,
百洗徹其裏.	백번 씻어 마음 속을 밝게 해야 한다네. ⁴⁶⁾

앞의 작품은 「無極島」이다. 이진상은 여기서 대지와 섬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 했다. 즉 개별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것은 둘이지만 보편성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라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둘째 구로 이어져 하늘과 물도 역시 하나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상력의 근저에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이 있다. 주돈이는 이 글에서 ‘無極’과 ‘太極’의 개념으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 그리고 운동의 근원을 밝혔다. 이진상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 앞의 작품 「무극도」를 읊었다. 그리고 이것을 源頭處에 해당하는 만귀정에서 지었기 때문에 사물의 생성과 존재의 근원이 되는 무극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었으며, 동시에 마음의 문제로 환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말한 무극의

44) 李震相, 「次雲圃亭十一詠·總叙」(『寒洲全書』 1, 54쪽), “雲本山間物, 非於世路熟. 何如藏我圃, 不被風頭逐.”

45) 李震相, 「晚歸亭次軸中韻二十二首·無極島」(『寒洲全書』 1, 44쪽)

46) 李震相, 「晚歸亭次軸中韻二十二首·洗心池」(『寒洲全書』 1, 44쪽)

참됨을 알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는 결국 셋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한 원두처, 우주 생성의 시발점, 훼손되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다. 이진상은 이것을 유기적으로 작용시키면서 존재의 합일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뒤의 작품은 「洗心池」이다. 이것 역시 중부 이원조의 수양처인 만귀정에서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마음의 문제를 보편성에 입각하여 더욱 강조한 것이니, 앞의 작품 셋째 구 및 넷째 구와 강한 친연성을 지닌다. 이진상은 마음을 止水에 비유하고 이것을 心體라고 하였다. 이 심체가 회복되면 성인과 범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다. 성인과 범인이 갈라져서 그 사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은 氣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했다.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수양에 입각한 '洗心'이라고 했다. 이것은 세심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인은 보편자인 태극으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周易』 「繫辭」 上의 「聖人洗心」이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표현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아와 사물의 개별성을 넘어서는 자리에 수양에 의해 존재의 합일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이진상의 시문학에 작용한 사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장에서는 사물의 인식방법과 존재방법에 따른 일련의 문학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진상 시문학의 경우, 사물의 인식방법으로는 사물을 통해 세상을 살피는 역사적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는 즉물적 인식과 사물을 통해 성리학적 이치를 살피는 이념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 가운데 그 문학의 지향점은 물론 이념적 인식이었다. 사물의 존재방법으로는 보편자보다 개별자가 강조되면서 자아와 사물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는 대립적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보편자와 개별자가 동시에 강조되는 조화적 존재와 개별자보다 보편자가 더욱 강조되는 합일적 존재가 주

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그 문학의 최종 지향점은 물론 합일적 존재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념적 인식을 통해 합일적 존재를 성취하고자 했던 이진상의 문학사상을 만날 수 있다. 즉 이념적 인식을 통한 합일적 존재로의 발전과정은 그의 문학창작에 있어 중요한 내적 원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내적 원리와 맞닿아 있는 이진상의 철학적 기저는 무엇일까? 이것이 다시 궁금해진다.

4.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

이진상은 스스로 '산수벽'과 '문자벽'이 있다고 했다. 산수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산수를 두루 기행할 수 있었고, 문자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작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그는 주희와 이황을 존모하는 투철한 성리학자였으므로 여행의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물에 대하여 특별한 문학사상적 원리에 입각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앞서 살핀 사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한 자아와 사물의 합일적 정신경계, 그 성취는 대단히 치밀하고 풍성한 것이었다. 성리학자들의 한시작품에 이같은 현상이 두루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진상은 이것을 구체적인 그의 철학적 사유과정 내지 그 결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를 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진상의 산수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因物起興'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의 궁극은 造道的 입장에 있었다. 이것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도의 성취과정과 그 결과를 문학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도에 나아가는 것(造道)은 산과 같아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몸을 이루는 궁극처는 비로소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⁴⁷⁾이라고 하거나, '도에 나아가는 것

(造道)은 순서가 있어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은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48)고 한 언표를 통해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리를 터득하는 데는 분명한 지향점과 이에 따른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진상 문학사상의 철학적 기저를 따지기 위하여 그의 성리학적 방법론을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철학적 사유과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리학적 방법론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듯이 인식론적으로는 豎看·橫看·倒看을, 유추방법으로서는 順推와 逆推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성리학적 접근을 위한 기본 개념인 理와 氣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인들이 마련한 것을 이진상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간'은 본원상에 나아가서 보는 것이고, '횡간'은 유행처에 나아가서 보는 것이며, '도간'은 형적상에 나아가서 보는 것49)이다. 즉 본원으로부터 사물을 보는 것이 수간이라면, 사물로부터 본원을 보는 것이 도간이며, 횡간은 이 둘 가운데 선후관계를 두지 않고 그 흐름을 보는 것이라 하겠다.50)

이진상은 순추와 역추로 성리학적 유추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순추가 궁극적 원리에서 경험적 사실을 추론해 가는 방법이라면, 역추는 경험적 사

47) 李震相, 「晚歸亭次軸中韻二十二首·晚歸亭」(『寒洲全書』 1, 43쪽), “造道如山不厭深, 致身極處始安心.”

48) 李震相, 「次郭鳴遠俛字吟」(『寒洲全書』 1, 52쪽), “造道有階級, 登高必自卑.”

49) 李震相, 「答沈樸文·別紙」(『寒洲全書』 1, 174쪽), “竊念理氣之妙, 不相離不相雜, 要在人離合看. 故有就本源上豎看者, 有就流行處橫看者, 有就形迹上倒看者. 窮理之始, 倒看而有所據, 析理之精, 橫看而無所遺, 明理之極, 豎看而得其真.”

50) 이를 우리는 리에 대한 본원상의 인식, 유행상의 인식, 형적상의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성은 앞의 논문에서, '수간은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연역해 가는 방법이며, 도간은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귀납해 가는 방법이며, 횡간은 이 두 관점 가운데 선후없이 어느 관점이든지 주로 해서 보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형성, 앞의 논문, 30쪽 참조.

실에서 궁극적 원리를 추론해 가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는 주희가 ‘현재의 사물로부터 보면 음양이 태극을 함유하고, 그 근본을 추론해보면 태극이 음양을 생성한다’⁵¹⁾는 말에 대하여 순추와 역추의 논리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사물로부터 보는 것은 역추이고, 그 근본을 추론하는 것이 순추이다. 역추는 사람이 보는 시작이고, 순추는 천리의 근원이다. 사물에서 위로 역추하면 사실에 의거하게 되고, 원리에서 아래로 순추하게 되면 참을 얻는다.’⁵²⁾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진상은 리와 기를 수간과 횡간, 그리고 도간이라는 인식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순추와 역추라는 유추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리기 심성론을 탐구하고 또한 자연과 인간을 해명하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방법론은 도간과 역추 만을 일삼고 수간과 순추의 중요성을 망각한 당대 학계의 병통을 반성적으로 극복하자는 의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理氣先後 문제나 理氣動靜 문제 등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수간의 입장에서 주희의 만년 정론을 재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세계를 탐구하자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그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지어 原泉과 리를 강조할 수 있었다.

原泉本靜一,	원천은 본래 고요한 하나이지만,
出坎便西東.	근원에서 나오면 곧 이리저리 흐른다네.
合處誠無異,	합쳐지는 곳은 진실로 다름이 없고,
分時亦有同.	나누어질 때도 또한 같음이 있다네. ⁵³⁾

51) 李震相, 『理學綜要』(『寒洲全書』 2, 12쪽), “按朱子曰, 自見在事物而觀之, 則陰陽涵太極, 推其本, 則太極生陰陽.”

52) 李震相, 『理學綜要』(『寒洲全書』 2, 12쪽), “觀乎物者, 逆推也, 推其本者, 順推也, 逆推者, 人見之始, 順推者, 天理之原. 物上逆推, 則靠實, 理下順推, 則得眞.”

53) 李震相, 『次朱子分水韻』(『寒洲全書』 1, 77쪽)

尊而爲帝妙而神,	존귀하면 帝가 되고 묘하면 神,
這理昭昭賦在人.	이 이치 밝고 밝게 부여되어 사람에게 있다네.
萬化雖分元一實,	수많은 造化로 비록 나누어졌으나 원래는 하나의 實,
拖泥帶水便非眞.	진흙탕의 물이 곧 참은 아니라네. ⁵⁴⁾

이진상은 ‘이치를 밝히는 극치(明理之極)는 수간하여야 참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일찍이 ‘여기 하나의 물이 있으니 위로부터 수간하면 샘으로부터 바다에 이름에 물줄기가 비록 많지만 한결같은 샘물이 흘러가는 것이다.’⁵⁵⁾라고 말하였다. 그 바닷물은 수많은 조화를 거쳐서 이룩된 사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一實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를 관철하는 보편적인 원리와 구체적·개별적인 원리 사이에 어떤 일치성이 있다는 理一分殊의 다른 말이다. 이 때문에 앞의 작품에서 원천은 하나이고 이것이 흘러서 동서로 나누어지지만 보편자인 리가 있다고 했다. ‘亦有同’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뒤의 작품은 이것을 마음으로 환치시켜 인간의 마음은 본원적으로 신령스러워, 누구나 이 밝고 밝은 신령스러움을 품부받았다고 했다. 현상적인 흙탕물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모두 수간과 순추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이진상은 산문적 논설로 수간과 순추를 강조하지만, 시문학 작품은 의식이 사물과 부딪치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단순하지가 않다. 문자벽이 있었던 이진상은 여러 사물을 통해 문학작품을 창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진상의 문학세계에는 수간 내지 순추적 입장에 선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이같은 작품은 문학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철학적 논설을 평측과 운에 맞추어 배열하는데 그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

54) 李震相, 「述學自警二十六絶·明理」(『寒洲全書』 1, 46쪽)

55) 李震相, 「太極圖筭義」(『寒洲全書』 4, 423쪽), “今有一水焉, 從上而豎看, 則自泉放海, 波別雖多, 而一是泉之放也.”

다. 주리론자 이진상 문학의 본질은 오히려 도간과 역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험적 사실인 형적상으로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였으며, 역추를 지극히 해서 大源頭處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격물치지 함으로써 한순간에 대원을 만날 수 있는 豁然貫通의 경계를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추상적인 논리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문학은 사물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사물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위해서 이진상은 하나의 사물을 다방면에서 관찰하는 연작시를 상당수 지었다. 이진상의 연작시는 크게 네 가지 계열이 있다. 첫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산수 기행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물에 흥을 일으키고 이것을 연작시의 형태로 남긴 경우, 둘째는 공부의 긴요처를 일정한 논리에 입각하여 연작시로 지은 경우, 셋째는 역사적 인물이나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연작시로 지은 경우, 넷째는 구체적인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연작시의 형태로 남긴 경우가 그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금강산 등을 기행하면서 창작한 일련의 작품들로 나타나며, 두 번째의 경우는 「善小必爲」와 「克己」 등 학문과 수양과정의 중요한 대목을 작품화 한 「述學自警二十六絶」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伊尹 등 고인 22인을 노래한 「嚶古二十二絶」과 郭鍾錫 등 당대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山齋感懷十九絶」 등이 대표적이며, 네 번째는 산 속에서 살면서 주위의 경치를 21수로 묘사한 「山居寫景二十一首」가 대표적이다.

네 계열의 연작시 가운데 네 번째에 초점을 두어 사물에 대한 묘사의 쫓진성을 관찰해 보자. 朴輝道の 정자에 가서 주의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 그려낸 「寄題朴輝道山亭十絶」이 그 하나인데, 이 작품은 「忘魚磯」, 「友鶴臺」, 「光道壁」, 「卓見巖」, 「存心橋」, 「豁眼林」, 「夢陶逕」, 「景濂塘」, 「日涉園」, 「風詠壇」 등 1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그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듯이 하나같이 사물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같

은 시도는 만귀정과 그 주변의 경치를 22수로 읊은 「晚歸亭次軸中韻二十二首」, 칠산재와 그 주변을 10수로 섬세하게 그린 「七山齋十二景」, 합천에 있는 雲圃亭의 경치를 11수로 그려낸 「次雲圃亭十一詠」 등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차운포정십일영」은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가 얼마나 하나의 사물에 대하여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가운데 「出雲」과 「淡雲」은 이렇다.

白衣離碧山,	흰 옷을 입고 푸른 산을 떠나니,
借問向何處.	묻나니 어디로 가는고?
秋月勿纖翳,	가을 달엔 뜬 구름이 없어지고,
旱霧許暫去.	마른 장마에 잠시 떠나간다네. ⁵⁶⁾

玉女掃新粧,	깨끗이 새로 단장을 한 옥녀가,
嬌容映止水.	아리따운 모습으로 고요한 물에 비치네.
輕紗掩半面,	가벼운 김으로 반쯤 얼굴을 가리고,
點綴非爲累.	점점이 늘어놓지만 누가 되지는 않는다네. ⁵⁷⁾

앞의 작품은 「출운」으로 흰 구름이 푸른 산에 숨어 있다가 나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어 가벼운 구름을 거두어 떠난다고 하여, 구름의 효용적 기능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뒤의 작품은 「담운」으로 얇고 맑게 낀 구름을 묘사한 것이다. 새로 단장을 한 옥녀가 고요한 물에 비치는 듯하다고 하면서, 점점이 흩어져 있지만 조금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름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염천에 갑자기 해를 가리는 먹구름을 묘사한 「雨雲」, 거세게 부는 바람에 갑자기 흩어지는 구름을 묘사한 「旱雲」, 하늘에서 놀기를 좋아하다가 다시 골짜기로 돌아가는 구름을

56) 李震相, 「出雲」(『寒洲全書』 1, 54쪽)

57) 李震相, 「淡雲」(『寒洲全書』 1, 54쪽)

묘사한 「入雲」, 숲길을 옷과 같이 어둡게 하는 짙은 구름을 묘사한 「濃雲」 등 구름이 지닌 물성을 관찰하면서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⁵⁸⁾ 이것은 이진상이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상이 사물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의 문학작품이 인식방법으로는 도간을, 유추방법으로는 역추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계에 포진해 있는 낱낱의 사물로 나아가 궁리를 시작하여 그 이면에 내재된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 도간이고, 역추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사물로 나아가 거기서 보편적 원리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물을 즉물적, 혹은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觀物察形 혹은 觀物察理의 사물인식 방법을 보여줄 수 있었다. 문학이 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산수벽이 있었던 그의 성품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게 했다. 이 때문에 이진상은 여타 성리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작품이 많을 수 있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진상이 철저한 주리론자의 입장에서 사유했다는 점이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리기를 설명한다고는 하지만 그 귀결점은 수간과 순추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의 만년 정설을 수간으로 보고 주리론적 입장에서 주자학을 재정리한 점이 라든가, '만일 역추하여 도간한다면 단지 기의 운용만 보고, 리의 총막은 볼 수 없다'⁵⁹⁾고 한 언표, '원두로부터 순추하면 수간은全體'⁶⁰⁾가 된다고 한 발언 등에서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문학

58) 이 밖에 신령한 용이 조화를 부리며 다니는 듯한 「行雲」, 흩어져서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자는 「宿雲」, 흰 색으로 본 마음을 잃지 않는 「孤雲」, 머물러 사색하는 듯한 「停雲」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였다.

59) 李震相, 「四七辨」(『寒洲全書』 5, 412쪽), “若逆推而倒看, 則只見得氣之運用, 而理之冲漠, 不可見.”

60) 李震相, 「四七辨」(『寒洲全書』 5, 418쪽), “然而從源頭順推說, 則豎看者, 全體也.”

에서는 도간과 역추를 했을까? 이것은 시문학이 사물을 떠나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수간과 순추에 의한 작품이 없지 않으나 산물식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진상의 경우, 문학과 철학이 상호 역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오히려 더 넓고 더 깊은 문학사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상의 문학사상에는 그의 성리학적 방법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수간·황간·도간의 인식론과 순추와 역추의 유추방법이 그것이다. 그는 다양한 논설을 통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리기 심성론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궁극은 주자의 만년 정론에 따라 수간과 순추로 귀결되었다. 주리론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학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산수 흥취와 그 기행을 통해 수많은 사물을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물과 의식이 부딪치면서 작품을 생산해냈다. 그가 생산한 작품이 수간과 순추에 의한 것도 없지 않으나, 사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에 의한 자아와 사물의 합일적 존재를 그의 시세계에 중심으로 담아냈다. 따라서 그의 문학은 오히려 대원 두쳐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으니 도간과 역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철학과 문학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보다 큰 이진상의 사상이 확립되었던 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5. 논의의 요약과 남은 문제

본 논의는 이진상의 문학관을 살피는 데서 출발했다. 그는 '直心'과 '明理'를 그 문학관의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부화한 수식을 배격하며 達意를 강조하게 된다. 이것은 성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문학론이기도 했다. 이진상 스스

로는 그의 문학이 성글고 거칠다(疎而宕)고 자평했다. 이는 물론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활달한 기상을 지닌 그의 문학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활달한 문학적 기상이 있었으므로, '산수벽'과 '문자벽'을 동시에 지닐 수 있었다. 산수벽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산수를 두루 기행하였고, 문자벽이 있었으므로 만나는 사물마다 흥을 일으키고 또한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이진상의 산수 기행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그는 道脈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의무를 자각하기도 하고, 국토산하를 굽어보며 거대한 자아를 체험하기도 하며, 또한 역사유적을 만나면서 회고의 서정을 느끼기도 했다.

사물을 만나면서 창작된 그의 문학에는 어떤 사상이 작용하였을까? 사물의 인식방법과 존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전자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즉물적 인식과 사물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살피는 이념적 인식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후자는 보편자와 개별자가 동시에 강조되는 조화적 존재와 개별자보다 보편자가 더욱 강조되는 합일적 존재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다시 사물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통한 합일적 존재를 성취하지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같은 사상이 그의 문학에 작용하면서 그의 문학은 다양하게 생산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사물로부터 본원을 보는 側看의 인식론과 경험적 사실에서 궁극적 원리를 추론하는 逆推의 추리법이 그 기저에 있었고, 이것은 '心則理說'을 강조한 그의 주리론과는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豎看과 順推의 철학적 방법론과 도간과 역추의 문학적 창작원리로 보다 큰 역동적 세계를 만들어 갔던 이진상을 만나게 된다.

추상적 논리의 세계인 철학과 구체적 경험의 세계인 문학은 상호 경쟁 혹은 협동한다. 이것은 이진상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철학적 논리로서의 추상적 태극에서 아래의 구체적 사물을 보았다면, 문학적 직관으로 아래의 구체적 사물에서 위의 추상적 태극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용어들을 제시하면서 장황하고 정밀한 철학적 논설로 주리론을 갈파했다. 그러나 감성에 그 출발점을 마련해 둔 문학작품은 짧으면서도 함축적이다. 이진상 문학의 경우 觀物察理의 이념적 인식과 개개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성을 더욱 강조하는 합일적 존재가 문학의 이면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철학적 방법론과 문학적 창작원리가 역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아직까지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이진상 문학의 한계를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일이다. 이는 사림과 문학의 한계를 검토하는 일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성리학자들의 문학적 웅진력에 대한 한계를 검토하는 일이기도 하다. 두루 알다시피 이진상이 살았던 시대는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부패와 관료들의 기강해이로 삼정이 문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1862년의 진주민란을 비롯한 민중봉기는 이를 잘 대변한다. 밖으로는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통해 서양은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했고 일본의 침략세력도 한층 압박을 가했다. 그야말로 내외외환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같은 시대를 깊이 인식하면서 이진상은 당대의 時弊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방안으로 강한 주리론을 폈다. 그리고 『畝忠錄』 등에서는 적극적인 국경개혁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시문학에는 茶山 丁若鏞(1762-1836) 등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체제 모순과 삶의 갈등을 묘사한 현실주의적 전통이 외면되어 있다. 이것은 이진상 문학의 일정한 특징이면서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논의를 당대의 다른 문인들과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진상의 문학사상에서 순수시 계열에 대한 의미를 밝혀보는 일이

다. 주리론자 이진상의 문학은 사물에 대한 이념적 접근으로 자아와 사물의 합일적 존재를 성취하려는 것이 본령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는 산수 등의 객관적 경물이 천편일률적으로 '직심'과 '명리'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탐구하는데 활용되지는 않았다. 시는 본질적으로 서정적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정신의 무한한 영역으로 나아가는 순수시 계열이 존재한다. 70수에 이르는 輓詞에서는 인간생명체의 유한성에 대하여 한탄하기도 하고, 여행을 통해 만나는 자연에서도 순수한 산수흥취의 기쁨을 경쾌한 필치로 그려내기도 한다. 이같은 경향의 작품은 당대의 험난한 현실과 성리학적 이념을 떠나 있는 것으로 인간존재의 본질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그의 사상체계에 있어서는 자유의지에 의해 발출된 해방구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진상의 순수시 계열에 대한 의미는 인간 이진상의 서정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진상의 문학적 경향이 그의 문인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밝혀보는 일이다. 이진상의 제자는 '洲門八賢'으로 일컬어지는 俛宇 郭鍾錫, 韓溪 李承熙, 后山 許愈, 紫東 李正模, 膠宇 尹肖夏, 勿川 金鎭祐, 晦堂 張錫英, 弘窩 李斗勳 등을 비롯해서 다양하고, 淸宗석의 문하에서도 晦峯 河謙鎭이나 省窩 李寅梓, 眞庵 李炳憲 등이 있어 이진상의 재전제자들로 즐비했다. 이들은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계승·옹호하는데 전심전력함으로써 학파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나간다.⁶¹⁾ 그렇다면 이들의 문학사상과 철학적 기저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이진상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진상 문학의 '직심'과 '명리'를 위한 문학이 성리학자들의 추상적 이론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제자들의 경우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학파에서 최초로 서양철학을 소개하기도 하고, 공자교 운동이 일

61)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한국학논집』 26,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99, 31쪽.

어나기도 하며, 또한 파리지서 운동과 같은 민족운동도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이진상의 문학정신에 보이는 '직심'과 '명리'가 그의 학파적 역량 안에서 현실과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를 뚜렷이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진상의 문학을 통해 우리가 더욱 밝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컨대, 한시 영역 외에도 「鐘山齋記」·「朝陽齋記」 등 다양한 산문에 대한 검토, 이에 따른 운문과 산문의 유기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 연구 등이 그것이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이진상이 적극적으로 적용한 수간·횡간·도간, 그리고 순추와 역추 등의 성리학 방법론으로 문학 연구의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리학이 조선의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방법론은 철학 뿐만 아니라 문학과 역사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조선조 사대부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 바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의에서 거칠게나마 적용을 시켜보았지만, 이것을 다시 다듬고 확대하여 조선조 사대부 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개발해 보자는 것이다. 자생적 문학이론이 드문 오늘날 우리의 학계를 돌아볼 때 이 같은 연구 방법론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尙書』, 『毛詩』, 『性理大典』.
- 李震相, 『寒洲全書』, 亞細亞文化社刊, 1980.
-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 民族文化推進黨, 1989.
- 鄭述, 『寒岡全書』, 景仁文化社, 1979.
- 권대웅, 「한말 한주학파의 계몽운동」,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도형, 「한주학파의 형성과 현실인식」,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종석, 「성과 이인재의 서구수용론과 신학에의 관심」, 『발표논문자료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 김희곤, 「제2차 유럽단거 연구-심산 김창숙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박홍식, 「심산 김창숙의 유교정신과 구국운동」, 『발표논문자료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 이동희, 「한주학파의 퇴계 성리학 계승」, 『발표논문자료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 李相夏, 『寒洲 李震相 性理說의 立論 根據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 이종우,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統性情說 논쟁과 그 의의」, 『동양철학연구』 42, 동양철학연구회, 2005.
- 이종우, 「한주학파와 간재학파의 의리실천에 관한 논쟁」, 『한국철학논집』 15, 한국철학사연구회, 2004.
- 李炳性, 『寒洲 李震相의 性理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 임경석, 「파리장서 서명자 연구」,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鄭羽洛,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研究」, 『退溪學과 韓國文化』 34, 慶北大 退溪研究所, 2004.

- 鄭羽洛, 「德溪 吳健의 文學思想과 그 形象原理」, 『東方漢文學』 27, 東方漢文學會, 2004.
- 홍원식, 「한주학파의 공자교 운동」, 『발표논문자료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9.

Abstract

Lee Jin-sang's Zest for Nature and Philosophical Base of His Literary Ideas

Jeong, Woo-Lak

This study began with an examination on Lee Jin-sang's views of literature. His literary view was based on "jiksimsim(直心: to make mind upright)" and "myeogri(明理: to clarify reason)", so he rejected rhetorical flourish and emphasized to inform others of his ideas enough, which was a general literary theory of Neo-Confucianism philosophers. Lee Jin-sang assessed his own literature as loose and coarse one himself. Since his literary spirit was active, he could have "Sansubyeok(山水癖: to like nature too much)" and "Munjabyeok(文字癖: to like writing too much)" at the same time. His "Sansubyeok" caused him to travel widely throughout Korean hills and waters, and his "Munjabyeok" led him to be inspired by every things he met with and write a number of works. He made various tours in hills and waters, which made him think a spirit of duty and realized his own duties. Looking down at a country, he experienced a huge ego, and watching historical remains, he felt lyricism of recollection.

What ideas influenced his literature written through meeting with things? The ideas can be divided into a recognition method and an existence method of things. The former placed emphasis on sachlichkeit cognition that things are described realistically and ideological cognition that philosophical ideas are examined through things. The latter attached importance to a harmonious being who emphasizes a universal person and an individual person simultaneously, and a united being who emphasize a universal person more than an individual person, which was brought into a conclusion that a united being has to be achieved through ideological cognition of things. Such ideas had effects on his literature, which was produced variously. In addition, these ideas were

based on Dogan(倒看 : thinking in reversed views)'s epistemology to see an origin through things and Yeokchu(逆推 : to reason in the reverse order) to reason ultimate principles based on empirical facts. In this respect, it is different from his theory of Li, which emphasized "Simchiriseol(心卽理說 : a theory that mind is reason)".

Philosophy, the world of abstract reasoning, and literature, the world of concrete experience, compete or cooperate with each other. This respect is identified enough in Lee Jin-sang's literature. That is, using philosophical reasoning, he looked down at concrete things from the upper abstract entity of the cosmos and looked up at the abstract entity of the cosmos from the lower concrete things using literary intuition. Presenting various and complex terms, he proclaimed the theory of Li with long and minute philosophical reasoning. However, his literary works based on susceptibility were short and significant. In case of Lee Jin-sang's literature, ideological cognition of Gwanmulchalli(觀物察理 : the theory of watching landscapes and thinking reason) and a united being emphasizing universality immanent in each thing affected the background of his literature as important principles.

Key Word

zest for nature, literary ideas, jiksim(直心), myeongri(明理), Sansubyeok(山水癖), Munjabyeok(文字癖), a recognition method, an existence method, a united being, Dogan(倒看), Yeokchu(逆推), Gwanmulchalli(觀物察理)